

토요일만 되면 난장 서는 광주 '로또 명당'

코로나 불황에 시민들 몰려 복새통 매주 교통체증 부르고 사고 빈발 1등 배출가게 2차로까지 불법주차 횡단보도 점령하고 무단횡단까지 인근 상인 등 장사 차질 불만도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편의점 앞 왕복 7차로 도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다.

'편의점 로또방' 때문으로 1등이 6차례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 유명하다. 매주 로또 판매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몰린다. 로또를 사려는 긴 줄이 가게 밖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세워놓은 차량으로 교통 정체를 빚어준다.

이 일대 도로는 평일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하지만,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에는 도로 1·2차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꽉 막힌다. 지난달 27일에는 마감을 5분 앞두고 급하게 로또를 사려는 노인이 7차선 도로를 위협하게 무단횡단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매 주 복권 판매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질 않고 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판매처는 주말이면 불법 주차 차량들로 복새통을 이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당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로또 판매점 212곳 중 로또 1등을 배출한 판매점은 83곳으로, 광산구 신가동 편의점과 서구 화정동 복권방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6명의 당첨자를 배출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아파트 앞 슈퍼와 북구 양산동 로또판매점에서는 2번째로 많은 4명



광주지역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편의점 앞 도로에 지난달 27일 복권 마감시간인 오후 8시를 앞두고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 채 2차선까지 불법주차장을 일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른바 '로또명당'이다. 이들 판매점에는 매 주 '한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3번씩 1등 당첨자가 나온 광주지역 15곳과 2차례 1등이 나온 16곳도 인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로또 구입자들로 북적인다.

광산구 신가동의 로또 판매점을 찾은 시민은 "1등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매 주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코로나에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로또 판매액도 늘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로또 판매액은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4조 7450억원에 달했다. 일평균 판매액은 1297만8093장이며, 금액으로는 하루평균 130억원 꼴이다. 지난 2019년의 4조3181억원에

비해 9.9%(4269억원)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광주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은 2016년 1022억 7500만원 → 2017년 1084억8600만원 → 2018년 1149억 5000만원 → 2019년 1242억 300만원으로 계속 증가세다.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해당 판매점 일대는 매 주 교통난이 빚어진다.

952회 로또판매 마감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인근 판매점 앞은 편도 2차로 도로에 세워둔 로또 구입자들 차량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제 때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직진 차량들도 길게 늘어선 등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차량 한대가 빠져나가면 뒤이어 온 다른 차량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며 1시간 동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복권방 앞 도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북구 양산동의 로또 판매점 앞도 비슷했다. 판매점 앞 버스 정류장까지 차량들이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2차로에 서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다.

복권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고온 차량들이 차선을 차지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다가 하면, 접촉사고까지 빈발하면서 직접 불법 주차자 금지를 알리는 간판을 만들어 세워놓고 있다는 게 주변 상인들 전언이다.

한 상인은 "매 주 불법 주차자가 극심하고 토요일 오후에 가장 심하다"면서 "불법 주차차량이 차를 빼기 위해 뒤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도 일주일에 1-2차례 나고 있어 배달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지 생기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공법단체 포함시켜 달라" 임의단체 회원들 보훈처장에 항의

기존 5월 3단체에서 탈퇴한 5·18유공자들이 별도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오월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러 온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3단체와 함께 자신들이 구성한 단체도 공법단체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황 처장은 참배 이후 이들 회원들과 다시 면담하기로 약속하면서 참배를 마칠 수 있었다.

이들은 보훈처가 구속부상자회가 추진중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15인)를 승인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임의단체 회원(10명)들도 포함시켜 총 설립준비위원회 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처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분이 협조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답변했다.

황 처장은 이후 광주시 고(故)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부모 집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기오염 배출업체 특별점검 영산강환경청 이달 한달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3월 기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추진하던 점검을 합동 체계로 전환했다.

환경청은 이동식 측정 차량 등 최신 장비를 투입해 산업단지가 집중된 광양만 권역,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최근 2년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노후시설 운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 불찰로 실망·걱정 끼쳐 죄송" 김명수 대법원장 다시한번 사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력을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거듭 사과를 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 말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주)호원, 어용노조 만들어 노조 활동 방해 드러나

광주노동청, 지난달 대표 등 임직원 9명 부당노동행위 송치 해당기업 회장, 상의회장 후보 거론에 노동계 적절성 지적

기아 1차 협력업체인 (주)호원이 회사에 협조적인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 회장이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에서는 지역 경제계 대표인 상의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따른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 대표 노조로 삼아 교섭권을 확보해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

게 만들면서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는 게 광주노동청 판단이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23일 (주)호원 대표와 임직원 등 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회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제조업체 기아자동차

차에 차체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노사상생 취지로 운영되는 자동차합작법 (주)광주글로벌모터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동청은 회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측 주도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호원지회로부터 확보한 18건의 녹취록과 호원에 대한 압수수색, 회사 임직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조사 등을 거쳐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인 경우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교섭창

구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측 주도 노조 결성된 노조가 과반으로 교섭대표가 되면 향후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단체교섭권과 쟁의 행위까지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청 조사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서 노동계는 4일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검찰에 넘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보에 이와관련, 호원측 입장을 확인하려고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